

# 1 | 6 |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PIN) 표준화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태어난 아이핀(i-PIN)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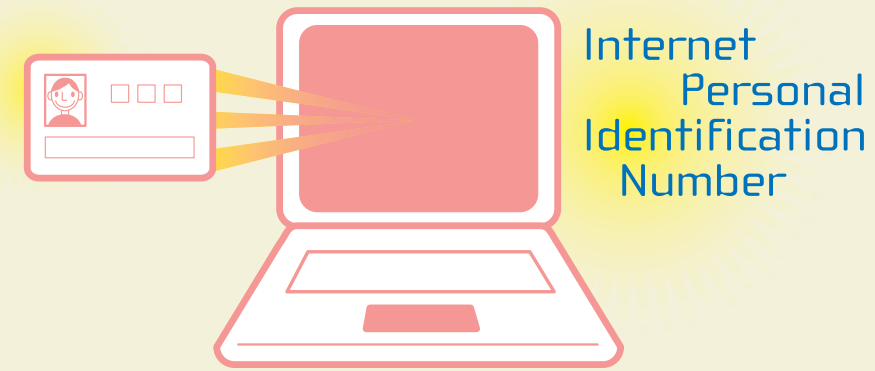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에게 인터넷은 단순히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인터넷이 활용되지 않는 분야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로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바로 개인정보의 노출이다. 최근에는 유명 웹사이트에서조차 고객의 정보가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악의적인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네티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은 인터넷 웹사이트 가입과정에서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메일 등을 제공받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 직접 대면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의 특징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명의 도용이 가능하며, 일단 한번 노출된 개인정보는 수정·삭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막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 바로 인터넷상의 개인 식별번호 서비스인 '아이핀(i-PIN)'이다. 인터넷 개인식별번호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명문 머리글자를 따 만든 i-PIN은 인터넷 이용자의 중요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도입,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다.

i-PIN은 대면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에서 자신이 신원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본인확인 기관에 제공하고, 신원정보의 소유자임을 본인확인기관에 증명하여 식별 ID와 비밀번호를 받아 등록하게 된다. 이때 본인확인기관은 본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이용자에게 13자리의 i-PIN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제공받은 i-PIN으로 웹사이트에서 본인을 확인할 때 사용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개인이 입력한 정보만으로 다른 웹사이트 회원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도용할 수 있지만, i-PIN은 본인확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을 거쳐 웹사이트에 제공하기 때문에 도용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의 i-PIN이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지 다른 i-PIN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상에서 노출되었다고 해서 이용자가 마음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지만 i-PIN은 노출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폐기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용을 이용자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 ■ i-PIN 서비스 표준화의 의미

i-PIN 서비스의 등장은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i-PIN 서비스 역시, i-PIN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과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불편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i-PIN을 발급받기 위해 거치는 신원확인 과정에는 이용자가 공인인증기관에서 직접 대면확인 후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공개키에 대응하는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수행한 전자서명 값

에 대한 검증을 통한 확인방법과, 신용카드사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 시 대면확인을 통해 등록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번호·신용카드 유효기간·비밀번호를 통한 확인 방법,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로 전송된 단문 메시지를 통한 확인 방법, 그리고 이용자가 직접 선호하는 본인확인기관을 방문하여 대면확인을 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즉, 웹사이트 선호 본인확인기관은 인터넷 웹사이트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는다. 이용자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i-PIN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은행업무나 기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i-PIN을 부여받기 위해 다시 개인정

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보다 다양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 차례의 개인정보 제공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바로 i-PIN 표준화이다. i-PIN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i-PIN만으로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TTA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i-PIN 서비스 표준을 규정하였다.

i-PIN 서비스의 표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용자는 개인 정보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원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으므로 회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